

17. 보일러 제조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보일러 제조업 작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정OO은 1993년 4월부터 Y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제작업무를 하였다. 2002년 6월 24일 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Y사는 보일러 제조사업장으로 1993년 4월부터 1996년 말까지는 기름보일러를 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스테인레스로 가스보일러의 연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상기 근로자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보일러 보온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보일러 외통에 부착한 후 철판을 말아 피스로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 보온제작업은 주로 밀폐된 공장에서 하였고 환풍기는 없었다. 1995년 - 1997년 3월까지의 은박매트(아트론)을 절단한 후 보일러 외통에 부착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스테인레스 판을 프레스 성형하여 연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팟용접을 하였다. Y사는 과거 H산업을 이어받은 것인데 H산업에서는 연탄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석면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보온재는 금강이나 한국유리에서 들어왔고, 한국유리의 보온재는 유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많이 났고 꺼끄러우며, 금강의 보온재는 유리처럼 보이고 노란색이고 꺼끄럽다고 하였다. Y사 이전에는 H산업의 상호이었는데, 상기 근로자는 1982년 8월에 H산업에 입사하였다. 보온재의 성분분석 결과 유리섬유로 확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정OO은 직업력상 과거 고추건조기계 제조업에서 1-2년을 근무하였다. 건설 노동자로 근무한 적도 있으며 1977-1979년까지 2년간은 S금속에서 주물작업(용해)을 하였다. 1982년 8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현 Y사의 전신인 H산업에서 근무하였으며 보일러 제조업무를 하였다. 1993년 4월에 Y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제조업무를 하던 중 1999년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고 체중이 감소하여 감기치료를 하였다. 2001년 11월 S 방사선과에서 단순방사선촬영결과 폐에 염증이 있다고 하여 S병원 외과에서 2개월간 약을 복용한 후, 2002년 6월 24일 S대학병원에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담배는 3-4일에 한 갑 정도를 피웠다고 하나 양은 정확하지 않았다.
4. **결론:** 정OO의 폐암은
 - ① 현재 확인 가능한 보온재 중에 석면은 확인할 수 없으나,
 - ② 20년 간 보일러 제작과정에서 보온재를 취급하였고, 과거 보온재에는 석면을 함유한 경우가 있으며,
 - ③ 보일러 제작 이전에는 2년 간 주물공장에서 용해작업을 하였으므로,
 - ④ 비록 흡연력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 중 노출된 석면 또는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